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경남 통영으로 떠나기를 다녀왔다.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은 소문만큼 아름다운 풍광과 박경리 기념관 등 명소들이 풍성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무엇보다 우리 일행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도시 곳곳에서 펼쳐진 '난장'(亂場), 통영국제음악제(TIMF·23~28일)의 프리니제스티벌이었다. 올해는 음악제 기간 전후로 약 250여 개의 예술단체들이 통영시 전역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다.

클래식 저변 확대한 TIMF

그중에서도 강구안 항구에서 만난 아카펠라 4인조 혼성그룹 'WITH'의 공연은 프린지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현상이었다. 비록 공연장의 화려한 조명은 없었지만 관객과 예술가들은 탁 트인 바다를 무대로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감동을 나눴다.

지난 2002년 통영 출신 음악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창설된 TIMF는 '아시아의 대표음악제'로 자리 잡았다. TIMF 사무국에 따르면 개막공연이나 유명 예술가들의 콘서트는 한 달 전에 매진될 정도다.

부대행사인 프린지 역시 해가 갈수록 참가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TIMF의 가장 큰 공(功)은 음악인구의 저변확대다. 지난 10년간 사무국은 차별화와 대중화를 모토로 음악제가 끝난 후에도 연주 아카데미, 레지던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

광주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과 클래식 음악과는 답답하고 살았던 문화의 한들도 음악의 매력에 빠져 애호가로 변신 중이다.

TIMF의 성공을 접한 순간 문득 광주에서 열렸던 피아니스트 임동혁 콘서트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오버랩됐다. 지난달 중순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임동혁의 광주 순회 콘서트는 그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빈 좌석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예향 광주의 예상치 못한 '홀대'에 마음이 상했는지(?) 젊은 피아니스트는 연주를 마친 후 관객들의 끈질긴 열광을 외면한채 공연장을 떠났다.

이달 초 광주를 찾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역시 썰렁한 객석을 마주보며 4일간 공연해야 했다. 6회 공연(회당 1700석)임을 감안하더라도 유료 관객 4500명은 기확사도 깜짝놀란 저조한 성적이었다. 이에 반해 노트르담 드 파리 대구공연은 10일 동안 객석점유율 80~90%(총 14회 공연·회당 1900석)를 기록했다. 관객들 가운데에는 뮤지컬 관람으로 계모임을 대신하는 주부들도 많았다. 10년 전부터 '공연예술도시'를 표방한 대구의 예술기관들이 꾸준히 관객 창출에 열정을 쏟은 결과다.

문화도시로 불리는 광주에서 전속매진을 기대했던 두 공연의 '굴욕'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웬만한 블록버스터 전시회

이젠 문화소비자 창출 나서야

대표적인 곳이 비엔날레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이다. 광주의 미술과 공연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지만 정작 문화시민 양성에는 관심이 없다. 재단은 비엔날레 폐막과 동시에 '그들만의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광주문화재단은 공연이 없는 날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흔히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로 인프라, 콘텐츠,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꼽는다. 이 가운데 문화마인드는 개개인의 관심과 체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 힘들다. 국내 많은 예술기관들이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화려한 아시아문화전당과 대형이벤트가 '문화광주'의 장미빛 미래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시설과 볼거리를 갖추었다고 한들 정작 시민들이 즐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우리 풍속 중에 이사만큼이나 다양한 것도 드물다.

지금이야 아이들이 전학하기 좋은 방학이나 직장 일에 지장 없는 날을 택하지만 그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잡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심정이다. '손'이란 본래 손님이나 귀신을 가리키는 말로, 궁핍한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하기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다는 뜻과 귀신이 활동하는 날에 이사를 하면 해코지를 당하기 십상이므로 그날을 피하자는 의미다. 동서남북에는 귀신이 머

농협 남약시대, 다복의 발원지로

무는 날짜가 따로 있어 각기 그 방향의 날짜를 피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음력 9, 10, 19, 20, 29, 30일이 해당되어 지금도 이삿날로는 가장 불비는 날이다.

제주에서는 유달리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까지의 '신구간'에만 이사가 밀리는데 이 기간은 옥황상제가 일년 중 한 번 세상사를 보고받고 신관과 구관을 교체하는 시기로 이때 집을 고쳐거나 이사를 해야 화를 면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영조 때 실학자인 이종환이 지은 '택리지'에서는 주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리·생리·인심·산수를 들고, 산 좋고 물 좋고 토질이 좋으며, 햇빛이 잘 들어 읍촌이 아닌 곳에 집을 지으면 재산이 늘고 자손 대대로 번성할 것이라 하였다. 이사 갈 집의 방향에서도 '남향 집에 동향 대문'을 제일로 꼽았다. 남향은 음양오행설에서 양기가 가장 충

전한 쪽이고, 햇빛이 잘 들어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이다. 동향 대문을 바라게 된 것도 동쪽은 양의 방향이므로 풍요다산(豊饒多産)과 다복(多福)이 들어오는 쪽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사 갈 때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꼭 살려서 가져가야 했는데 불을 재산신으로 여겨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하는 것으로 여겼고, 바가지에 물을 떠서 고추·숯·소금을 넣고 이사 온 집의 부와 바닷가에 두었는데, 이것 또한 부정을 가시게 하고, 잡귀를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다. 일십삼 년 전만 해도 이삿날 집을 방문할 때 사기는 선물 이 성냥이나 양초였던 것은, 모든 일이 불꽃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윤진보

우리나라에는 철도의 대활극이면서 국가 기간교통망의 양대 축인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있다. 이중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 완전 개통되었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는 2014년, 2단계(광주~순창~목포)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기존선을 개량하는 노선(안)으로 진행하다 전남도의 강력 반발로 노선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기간교통시설인 고속철도(KTX)는 현재의 경제성보다는 잠재 국가 경쟁력 제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해야 한다

고를 위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4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이명박대통령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라며 "오�히려 국가가 선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기존 철도를 개량하여 건설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에 정면으로 반하는 계획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역민의 소외감은 극에 달할 것이고 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호남고속철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반드시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직접 경유하여 목포역에 이르는 고속선으로 건설되

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과 고속철도망을 연계하여 구축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촉진할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프랑스(파리 샤를드골공항), 독일(프랑크푸르트공항), 스페인(마드리드 바라하스공항), 노르웨이(오슬로 가르데르모공항), 일본(간사이공항), 중국(상하이 푸둥공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공항과 고속철도의 연결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연간 안개 일수(인천공항 47일, 무안공항 17일)나 영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적 유사시 등에 대비해 무안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그 기능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철도의 연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호남~

국민의 방송에서 남성차별적 성희롱 이라니

일전에 인터넷에는 가수 조영남씨가 같은 연예인인 최유라씨에게 기습 뽀뽀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온 걸 가지고 말들이 많았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성추행이 될 수도 있기에 인터넷 댓글도 뜨겁다. 요즘은 그만큼 남녀간에 사소한 행동이나 말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계의 주장과 남성들의 반성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학대하려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법이 강화됐다.

이것은 육체적 접촉은 물론이고 음란한 눈길이나 말 표현만으로도 그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여성을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요즘 TV를 보면 이런 여성의 보호 이전에 최근 남성들을 비하하거나 가지고 노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여자별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기겁을 할 뻔했다. TV내용인즉 촬영 중 여성 탤런트로부터 뽀뽀를 해달라는 주문이 시달렸다는 남성 탤런트의 말에 여성 탤런트는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관객과 출연진은 폭소를 터뜨렸고 소위 굉장히 못생긴 축에 속하는 그 남성 탤런트는 무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MC가 출연자 중 이상형을 묻자 잘 생긴 젊은 연예인 미남을 가리키며 "오늘 또 새것이 있네"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변 출연진과 관객들이 또다시 배꼽을 잡고 웃었다.

아무리 쇼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남성들은 여기서 거의 물론 취급당하며 여성의 노리개가 돼버린 것이다. 만약 여성을 놓고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개그를 펼쳤다면 여성계는 가만 있었을까? 아마도 난리 났을 것이다.

술기관의 직무유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근래 광주는 비엔날레재단(재단)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재단 등이 앞다투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올인한 나머지 지역민들의 일상과 괴리가 있다.

이젠 문화소비자 창출 나서야

대표적인 곳이 비엔날레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이다. 광주의 미술과 공연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지만 정작 문화시민 양성에는 관심이 없다. 재단은 비엔날레 폐막과 동시에 '그들만의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광주문화재단은 공연이 없는 날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흔히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척도로 인프라, 콘텐츠,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꼽는다. 이 가운데 문화마인드는 개개인의 관심과 체질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 힘들다. 국내 많은 예술기관들이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화려한 아시아문화전당과 대형이벤트가 '문화광주'의 장미빛 미래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시설과 볼거리를 갖추었다고 한들 정작 시민들이 즐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처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가정생활의 필수품인 비누나 화학 세제·치약 등이 집들이 세트에 빠지지 않는 것은 새로 이사 간 집의 부정을 없앤다는 민간 신앙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좁은 땅에서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배불리 먹고 양식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소망이었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목적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농사가 잘되는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이었다.

지난 월요일엔 전남농협지역본부가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남양신도시에 동지를 틀었다.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업으로 변화를 선언한 전남농협과 남양의 새로운 집터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고, 풍요다산과 다복의 발원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부 차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시설

여수박람회 관람객 동원에 총력 쏟아야

여수세계박람회가 개막을 불과 42일 남기고 있으나 예매표 판매가 목표치의 12% 수준에 머물러 관람객 동원에 비상이 걸렸다. 예매율 부진은 정부의 관심이 그동안 핵안보정상회의에 쏠린데다 기업체의 참여와 지자체들의 구입이 극히 저조한 때문이다.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예매된 입장권은 38만 2000장으로, 조직위가 박람회 개막전 목표표로 잡은 300만 장의 12.7%에 불과하다. 여기에도 박람회 기간을 포함한 전체 판매 목표 800만 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정부기관 5만 장과 현대자동차그룹 20만 장(60억 원), GS칼텍스 4만 장(10억 원), 광주은행 4억 원 등 판매금액으로 96억 원이 고작이다. 문제는 예매 추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까지 27만 장이 예매됐지만 2월에는 3만 장, 이달 현재까지 8만 장이 팔리는데 그쳤다.

올 7월 열리는 영국 런던올림픽도 걸림돌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올림픽 후원과 방송 광고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람회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여수박람회 정부지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박람회 붐'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와 전남도, 조직위가 박람회 개막전 목표표로 잡은 300만 장의 12.7%에 불과하다. 여기에도 박람회 기간을 포함한 전체 판매 목표 800만 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정부기관 5만 장과 현대자동차그룹 20만 장(60억 원), GS칼텍스 4만 장(10억 원), 광주은행 4억 원 등 판매금액으로 96억 원이 고작이다. 문제는 예매 추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까지 27만 장이 예매됐지만 2월에는 3만 장, 이달 현재까지 8만 장이 팔리는데 그쳤다.

택시기사 '습득 스마트폰' 판매는 범법행위

일부 택시기사들이 택시에서 습득한 승객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당 100여만 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습득, 불법 중고폰 업자에게 넘겨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택시조합 분실물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스마트폰 분실신고 사례는 모두 60여 건에 달한다. 반면 습득사실과 함께 스마트폰을 찾아가라고 글을 올린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은 거의 찾지 못하는 예이다.

택시 기사 후 곧바로 연락을 해도 전화가 꺼져 있기 일쑤고, 분실물센터로 연락해야 찾을 수 없어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고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또 스마트폰에 거래처 정보 등을 저장해둔 자영업자가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분실자의 유무형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분실시 찾기가 어려운 것은 인터넷 등에 중고폰을 전문으로 취급하

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법업자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매매를 유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당 100여만 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중고로 내놓아도 20여만 원을 쉽게 손에 쥐일 수 있어 기사들의 자진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택시기사들에게 분실·도난 스마트폰 200여 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걸려든 일은 이런 사실의 방증인 셈이다. 택시기사들에게 '습득 스마트폰'은 '로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분실 스마트폰을 찾아줘야 하는 것은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렇지 않고 중고업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손님이러는 인식을 막강한 처사이자 엄연한 범법행위를 부정하는 일이다. 사법당국도 불법 중고폰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죽음 이후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후세계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죽음학의 대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저서인 사후생(On life after death)에서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고 밝히고 있다.

로스에 따르면, 고지(몸)가 회복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영혼)가 태어나 고지를 벗어나는데 이것이 첫 단계다.

죽음의 이유가 자살이든, 살인이든, 질병이든 똑같다.

두 번째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는 평온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뒤 터널을 지나 하얀빛에 둘러싸이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면 바로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이 된다.

마지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남아 있었던 의식이 없어지고, 얕(Knowledge)을 소유하게 되는 단계다. 이승에서 행했던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알게 되고, 완전한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자신

의 전 생애를 성찰하게 된다.

로스를 비롯한 죽음학자들은 사후생이 실재한다는 유력한 근거로 근사체험을 들고 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터널을 통과한 뒤 황홀경 속에서 밝은 빛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이 근사체험의 줄거리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체 체험 연구센터'는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 "근사체험은 자각몽(自覺夢-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꾸는 꿈)의 일종"이라며 주장했다. 자각몽을 꾸도록 훈련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근사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요지요지, 근사체험이 아니라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이 된다.

인간의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 인간 하지만, 영생 불멸을 소망하는 인간에게 한 가닥 위안이 되었던 '죽음 이후의 삶'마저 과학으로부터 도전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홍행기 정치부차장redplane@kwangju.co.kr



사후생(死後生)

죽음 이후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후세계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죽음학의 대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저서인 사후생(On life after death)에서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고 밝히고 있다.

로스에 따르면, 고지(몸)가 회복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영혼)가 태어나 고지를 벗어나는데 이것이 첫 단계다.

죽음의 이유가 자살이든, 살인이든, 질병이든 똑같다.

두 번째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없는 평온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뒤 터널을 지나 하얀빛에 둘러싸이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면 바로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이 된다.

마지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남아 있었던 의식이 없어지고, 얕(Knowledge)을 소유하게 되는 단계다. 이승에서 행했던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알게 되고, 완전한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자신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 |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慶完 | |
|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신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